

國際會議 과건지침 確定

기술정보교류 국위선양 및 학술교류

美洲 5名, 歐洲 3名, 東南亞 1名, 과건

77년도 과건지침

과건지침은 지난 8日 77년도 과건지침을 확정했다.

그 목적은 국제학술단체 또는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학술교류를 통한 국제과학기술동향 파악 및 기술정보교류를 촉진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 국위선양을 하기 위한 것이다.

과건계획은 9명으로 지역별로는 구주지역에 3명, 미주지역에 5명, 동남아시아에 1명이다.

국제회의 종류에 따라 우선적으로 과건할 계획인데 그것은 제 4차 경제개발계획과 과학기술 5개년계획의 목표달성을 지원하는 회의 및 기초과학분야 국제회의에 내지 자원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국제학술회의, 2차산업 육성과 직결되어 과건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회의, 참가자가 전문성을 발표토록 할 예정된 회의의 국제기구 또는 국제학술단체가 주최하는 정기회의 주최측이 경비 일부를 부담하는 회의 등이다.

과건대상자의 자격은 해당 분야의 근무하는 2급공무원 이상으로서, 연령이 40세 이하인 자, 과학기술처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원하는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을 정규대학 부교수 이상이다.

과건절차는 과기처 소속 의 공무원일 경우 주무부장관의 추천 또는 동의로 인하여 과건한다. 그리고 민간인 일 경우 주무부장관과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 또는 동의 를 받아 공무원로 위촉과건한다. 동인회의에는 1명 이상 과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특별사유가 있는 경 우 예외로 한다.

과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기간 전후 각 2 일을 가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비예산은 공무원인 경우 국외의 규정에 정한바 에 따라 계산하며 민간인일 경우 공무원의 3급급대우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최측이 경비를 보조해주는 경우 그 상당액을 소정경비에서 삭감 한다.

구비서류는 아래서류를 구 비회의 개최일 2개월전에 신청한다.
1. 초청장(사본 또는 과건이유서) 2부
2. 국·영문 이력서(사진첨부) 2부
3. 경력증명서(소속 기관장 발령) 2부
4. 관제부처 추천공한 1부
5. 국제회의 참가신청서(소정양식) 2부

- 1. 신원조회필증(의무부 발행 민간인에 한함)
- 2. 세부여행계획서 2부
- 3. 소요경비내역서 2부
- 4. 발표예정 논문(발표토록 결정된 경우)

신청자의 자적요진 심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구성했는데 위원장은 과기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7인을 두어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부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科學技術處

職制一部改編

科學技術處는 지난 12月 3日 閣議 議決에 따라 科學技術政策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온 綜合企劃室을 없애고 科學技術審議官室으로 개편 1級의室長제도를 新設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계획에 원성이었던 擔當官室이 모두 次官직속으로 들어갔다. 綜合企劃室 산하에서 차관직속으로 넘어간 職制를 보면 大德學園都市건설 官制를 다루어온 綜合企劃官 産業技術問題를 관장하는 技術開發官 人力需給계획을 전담해온 人力計劃官이며 이미 전성되어 있는 資源開發官을 합쳐 4개 副理事官級 擔當官관이 된다.

그런데 科學技術處의 綜合

企劃室 폐지는 科技處內에 企劃室長급이 2명이 있고 企劃室과 업무가 중복되어 오 래전부터 개편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합기술진흥재단 風土造成事業 評價會議 개최

지난 12月 28日 韓國科學技術振興財團(이사장 李庭林)은 三一路 발달 사업 서울크림에서 76年度에 실시한 科學技術 風土造成事業의 전반적인 評價會議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尹日善 고문 金立三 이사장, 權寧大 부이사장, 洪文和 박사, 科技處 金澄基 진흥국장 등 學界人士 30여명이 참석, 13개 종류의 事業內容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昨年度 事業을 토대로 한 今年度 事業의 方向 및 問題 등 事業目標에 관한 여러 가지 意見이 진지하게 토의되었다.

大韓造船學會 사무실 移轉

과합조선학회(회장 임상진)는 지난 1월 8일 8일 중로구 와들동 68에서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5층으로 학회사무실을 이전하였다. 변경된 전화번호는 58-7533이다.